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이 수 빈¹⁾

김 연 하²⁾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 자료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모든 연구 변인에 대해 응답한 1,462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onbach's α 계수 산출, 기술통계, 빈도분석,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연령 및 최종학력, 월 가구 소득, 아동의 성별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으며,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관련이 있었다. 이때,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양상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 및 아내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갈등이 있을지라도 남편 혹은 아내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 및 부모 양육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문제행동

* 본 논문은 2018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1)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수료

2)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l: yeonhakim@khu.ac.kr)

I. 서론

대부분의 부부가 시기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부부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어 함께 생활해나가는 과정에서 사고방식 및 가치관, 경제관, 생활습관 차이 등의 여러 이유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절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부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 한계를 넘어선 부부갈등은 분열적이고 파괴적으로 작용하여 결혼과 삶의 질을 위협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부부는 심한 우울 및 불안을 느끼며(김사라형선, 2010;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5), 분노감(장동숙, 유금란, 2018; 홍구화, 서영옥, 2012)을 갖는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양영숙, 김봉환, 2009).

부부간 심각한 갈등 상황은 부부 차원의 문제를 넘어 자녀의 현재 문제행동과 이후 성장 및 발달에까지도 직·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심각한 수준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의 불안, 위축,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 및 공격성, 반사회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강지현, 2014; 김오남, 2005; 박진희, 박지선, 2017; 좌현숙, 변귀연, 2010).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아동은 위축과 같은 불안정한 정서적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이승희, 김광웅, 2004), 저하된 자아탄력성으

로 인해 분노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공성애, 문혁준, 2015), 과도한 걱정, 예민함, 신체 및 수면 상의 문제, 부정적 정서, 주의력 문제 등을 갖게 된다(박정희, 2010).

그렇다면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전달되는 기제는 무엇일까? 부부갈등은 우선 불안정한 심리적 가정환경을 초래한다.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긍정적이고 안정된 심리적 환경도 필요하다. 부모의 정서적 상태는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직결되어 있다.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은 서로에 대한 공격과 비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한 아동은 불안, 걱정,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는 곧 아동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인의 부재, 혹은 언제 갈등이 심화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Cummings & Davies, 2002).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은 부모가 보이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적대적인 갈등 해결 방식과 반응양식을 내재화하여 이를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한다(Cummings & Davies, 2002). 아동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행동양식을 또래나 다른 성인과의 문제해결 상황에 사용한다면, 타인은 이를 문제행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자녀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부부갈등은 자녀에 대한 부실한 감독과 일관성 없는 엄격한 훈육으로 이어져 칭찬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Cohn, Jordan, & Mercer, 2013). 심각한 수준의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모는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부부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만족스러운 감정들을 표출하는 부모는 자녀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이루기 힘들고(이지희, 문혁준, 2007),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송명숙, 2016). 다시 말해 심각한 수준의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모는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이때 발생하는 부모의 좌절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온정적 반응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다(이형민, 2015).

그러나 꼭 부부갈등이 적고 부부간 관계의 질이 높아야만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부부간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자녀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결손을 경험하는 부모들은 이를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상받기 위하여 오히려 아동에게 더욱 큰 관여와 투자를 하기도 한다. 또한 확대적이고 역기능적인 배우자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와 연대를 맺기도 하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부모는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지라도, 자녀를 부부관계를 방해하는 방해자로 인식하여 자녀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냉담하게 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부관계의 방향성과 부모-자녀

관계의 방향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는 가설이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이다(Erel & Burman, 199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상 가설에 입각하여, 비록 부부갈등이 존재할지라도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형성하는 긍정적 관계(온정적 양육 행동)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문제 행동)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즉 부모가 비록 부부갈등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와 부모로서의 역할을 분리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적절히 제공한다면 부부갈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하영, 2010; 박보현, 양혜정, 2017; 정소희, 2011).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진경, 이정미, 강은영, 2018), 정서 문제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효은, 김춘경, 2018).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긍정적 양육방식을 행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은 완화될 수 있다(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또한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김녹현, 정영주, 차선희, 2014; 김춘경, 조민규, 2017; 우수정, 2016; 최혜란, 유지아, 김선미, 2017). 이처럼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송미옥, 이경호, 2017), 우울(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정서조절 및 친사회성(채영문, 2010), 심리적 건강성(김수희, 김세영, 2018)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의 온정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은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하게 하며(김영미, 송하나, 2018), 어머니의 낮은 수준의 온정적인 양육 및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허순영, 이경옥, 김영희, 2005).

아동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각자 고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Hart, Newell, & Olsen, 2003)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어머니만을 살펴보거나(김빛나, 진미경, 2014; 김은주, 2016; 배민정, 정윤경, 2015; 이소현, 2018; 최영희, 박남심, 송승민, 박보경, 강미숙, 2016)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김현아, 장혜인, 2017; 이지예, 신경순, 김영희, 2017) 부모 모두를 포함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내재화(오연택, 연규승, 2018; 최정은, 이소연, 2017) 또는 외현화 문제행동(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허청아, 배한진, 2018)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느 한 영역의 문제행동이 다른 영역의 문제행동에 일방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두 영역 간 양방향의 영향을 통해 공동 발달하게 되는 특성을 지니는 등(이은주, 2011) 서로 높은 상관관계와 높은 공존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서고운, 2017; Keiley, Bates, Dodge, & Pettit, 2000)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총 문제행동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유아기에는 자연스러운 발달적 문제행동과 실제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문제행동을 구분하기 어렵다. 발달적 문제행동은 걸음마기에 최고조를 이루지만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다. 반대로 사회정서 발달 이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꾸준히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유수옥,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문제행동이 어느 정도 사라진 시기인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만 6세 아동은 또한 초등 전이(transfer)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앞두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동은 구조화된 학습 환경 내에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양식이 입학 전에 확립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해의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학교 준비도와 연관된 중요한 발달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최 근접 미시환경인 가정 내에서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관계의 심리적 역동성과 아동의 학교 준비도 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매년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 서비스 등을 추적 조사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자료 중에서 1,620가구가 참여한 7차년도(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의 7차년도 조사에는 1,620가구가 참여하였는데(육아정책연구소, 2016),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모든 연구 변인에 대해 응답한 1,462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 6세 아동의 성별은 남아 748명(51.2%), 여아 714명(48.8%)이고, 평균월령은 75.09개월($SD = 1.4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9.27세($SD = 3.99$)이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93명(26.9%), 전문대 졸업이 299명(20.5%), 대학교 졸업이 615명(42.1%), 대학원 졸업이 155명(10.6%)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82세($SD = 3.68$)이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26명(29.1%), 전문대 졸업이 405명(27.7%), 대학교 졸업이 548명(37.5%), 대학원 졸업이 83명(5.7%)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은 월 평균 446.96만원($SD = 200.27$)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부부갈등

부모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가 개발한 부부갈등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부의 심리적 고통과 이혼 수준을 예측하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며,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다.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과 권희경(1999)의 척도 문항을 참고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기꺼이 수행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며, 자녀에게 애정 및 관심을 표현하는 양육행동을 일컫는다(조복희 등, 1999). 본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

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아동의 문제행동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0)의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1.5-5세용 척도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한국판으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BCL 1.5-5는 만 18개월부터 만 5세까지(만 6세 미만)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7차년도(2014) 자료의 조사 시점(만 6세)은 원칙적으로 CBCL 6-18을 실시해야 하는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CBCL 6-18은 학령기 생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CBCL 1.5-5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저항 및 짜증 등을 측정하는 정서적 반응성(9문항), 날카롭게 곤두선 기분, 긴장 등 부정적 감정을 측정하는 불안/우울(8문항), 분명한 의학적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불편감과 불분명한 예민함을 측정하는 신체증상(11문항), 어린 행동을 보이거나 애정 표현 및 주변의 즐거운 놀이에 대한 무관심을 측정하는 위축(8문항)과 수면문제(7문항), 과잉

행동, 둔한 운동신경 등을 측정하는 주의집중 문제(5문항), 행동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공격행동을 측정하는 공격행동(19문항), 다른 요인과 중복되지 않는 문제행동인 기타문제(33문항)를 살펴보았다.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척도는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친인척 관계의 주 양육자 포함)가 각 문항을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에서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까지의 3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아동패널 자료의 CBCL 1.5-5 검사결과는 ㈜휴노컨설팅에서 제공하고 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계수, 기술통계, Pearson 적률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연령 및 최종학력, 월 가구 소득, 아동의 성별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3단계 과정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해야 한다. 이때, 기존에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쳤던 효과가 투입된 매개변인에 의해 소멸된다면 완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이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쳤던 효과가 감소하였다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때, 아버지의 연령은 온정적 양육행동에,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연령과 최종학력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월 가구소득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모의 연령 및 최종학력, 월 가구 소득, 아동의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17,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25,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부부갈등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36, p < .00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29,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15, p < .00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28, p < .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아동을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부모의 연령 및 최종학력, 월 가구 소득, 아동의 성별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온정적 양육행동($\beta = -.34, p < .001$)과 문제행동($\beta = .17,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온정적 양육행동($\beta = -.29, p < .001$)과 문제행동($\beta = .25,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1단계와 2

표 1.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N = 1,46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72***	1													
3	.06*	.12***	1												
4	.03	.08**	.62***	1											
5	.09***	.11***	.30***	.32***	1										
6	-.00	-.01	.00	-.01	-.02	1									
7	.01	-.01	-.09***	-.09***	-.04***	-.02	1								
8	.09**	.05*	-.14***	-.12***	-.07**	.02	.64***	1							
9	.06*	.06*	.21***	.16***	.13***	-.02	-.36***	-.29***	1						
10	.04	.05	.15***	.12***	.09***	-.02	-.23***	-.29***	.32***	1					
11	-.02	-.04	-.02	-.04	-.11***	-.01	.15***	.22***	-.11***	-.24***	1				
12	-.03	-.04	-.09**	-.11***	-.09**	.12***	.18***	.27***	-.16***	-.29***	.72***	1			
13	.01	.03	.04	.01	-.06*	.01	.07*	.10***	-.05	-.15***	.53***	.47***	1		
14	-.03	-.03	-.06*	-.07**	-.09**	.05	.16***	.22***	-.15***	-.25***	.81***	.78***	.52***	1	
15	-.03	-.04	-.05	-.07**	-.10***	.05	.17***	.25***	-.15***	-.28***	.93***	.90***	.62***	.93***	1

주. 1 부 연령, 2 모 연령, 3 부 최종학력, 4 모 최종학력, 5 월 가구 소득, 6 아동 성별, 7 부 부부갈등, 8 모 부부갈등, 9 부 온정적, 10 모 온정적,

11 내재화, 12 외현화, 13 수면문제, 14 기타문제, 15 총 문제행동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462$)

단계	변인	아버지				어머니			
		β	VIF	F	R^2	β	VIF	F	R^2
1단계	통제변인	연령	.05	1.01		.06*	1.02		
		최종학력	.16***	1.11		.07*	1.13		
		가구소득	.06*	1.10	59.41***	.17	.04	1.13	32.04***
		아동성별	.02	1.00			.01	1.00	.10
	부부갈등 $\rightarrow$ 온정적		-.34***	1.01			-.29***	1.02	
2단계	통제변인	연령	-.02	1.01		-.04	1.02		
		최종학력	-.01	1.11		-.02	1.13		
		가구소득	-.10***	1.10	13.04***	.04	-.08**	1.13	23.33***
		아동성별	-.05	1.00			-.04**	1.00	.07
	부부갈등 $\rightarrow$ 문제행동		.17***	1.01			.25***	1.02	
3단계	통제변인	연령	-.02	1.01		-.03	1.02		
		최종학력	.01	1.14		.00	1.14		
		가구소득	-.09**	1.11	12.49***	.05	-.07**	1.13	32.32***
		아동성별	-.05**	1.00			-.04	1.00	.12
	부부갈등 $\rightarrow$ 문제행동		.14***	1.15			.18***	1.11	
	온정적 $\rightarrow$ 문제행동		-.09**	1.20			-.22***	1.11	

* $p < .05$. ** $p < .01$. *** $p < .001$.

단계를 모두 충족하였다. 3단계에서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beta = .14$, $p < .001$)과 온정적 양육행동($\beta = -.09$, $p < .01$)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beta = .18$, $p < .001$)과 온정적 양육행동($\beta = -.22$, $p < .001$) 또한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β 값이 2단계의 .17에서 .1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3단계에서 어머니가 지각

한 부부갈등이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β 값이 2단계의 .25에서 .18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Z = 2.99$, $p < .01$)는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Z

= 6.83, $p < .001$) 또한 유의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 자료를 사용하여,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해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직접적인 정적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주 다투거나 화를 내는 부부갈등 상황 아래에서 아동은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되며(장영애, 이영자, 2011),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갖는다고(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조수정, 2012; 송명숙, 2016; 임미지, 문혁준, 2014; 임수진, 최승미, 채규만, 2008)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만 6세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 관련성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부부갈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적 환경과 가정 내에 상존하는 역기능적 갈등해결 양식의 내면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Cummings & Davies, 2002). 부부관계는 가족체계 중 가장 핵심적인 하위체계로서, 부부간 관계의 질이 낮고 역기능적이면, 다른 구성원 간의 관계 역동성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부간의 관계 형성과 갈등이 단순히 두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 전체의 심리적 환경을

좌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은 부모를 역할 모델로 하여 문제해결 양식을 습득한다. 부모가 부부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아동은 가까이서 장기간 지켜보게 되는데, 이때 갈등 및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강력한 학습이 일어나고, 이를 쉽게 내면화하여 외부로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간 갈등해결 양식이 자녀에게 전이되어 하나의 행동양식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부모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이러한 부부갈등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아동은 부모로부터 내면화된 역기능적인 행동양식을 하나의 사회적 적응기제로 견고하게 구축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부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갈등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부모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적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행하고(장진영 등, 201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 수준은 낮게 나타난(권정윤, 조혜영, 2016; 민미희, 김정민, 김지현, 2016; 민하영, 2010; 윤광미, 2010; 이경남, 2004)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부모가 심각한 부부갈등을 경험할수록 낮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 부부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관심을 쏟거나 온정적으로

대할 여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여 배우자와도 관계 형성을 잘 하지 못하고, 자녀와도 온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 및 학력, 월 가구 소득 등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만큼 부부갈등 혹은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태도 이면에 자리한 개별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각한 부부갈등 및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의심되는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지식 및 정보 전달 방식의 부모교육보다는 가족 역기능의 고유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입각한 집중적이고 치료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가 어떤 양육방식의 유형을 행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가 있고(Belsky & Rovine, 1990), 부모가 온정 및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행할수록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은 낮다는(강지현, 오경자, 2011; 류관열, 2014)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 및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고(강수경, 김경숙, 이희연, 2018; 김복현 등, 2014; 김종훈, 성지현, 2014;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최미나, 신나나, 2015), 어머니가 덜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보호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예측했던 바와 같이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정문자, 전연진, 2005)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이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박세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 2017), 아버지가 지각한 부정적인 부부 특성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온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며, 낮아진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 있다고 밝힌(김이숙, 2016; 오새니, 권수진, 이상희, 2016)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버지가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인식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온정적 양육행동을 행하면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양상은 어머니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주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이숙, 2016; 이형실, 2017),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부모 역할 만족도와 양육행동을 이중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김종훈, 성지현, 2013)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부관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부부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던(민미희 등, 2016)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부부관계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김정은, 도현심, 2018; 도현심 등, 2012)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이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완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김한나, 이미선, 2013) 선행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행하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해당한다. 부모가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온정적으로 양육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개입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온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경우 아동의 내·외적인 성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을지라도, 부부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분리하여 온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가치는 매우 뛰어남을 부모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온정적 양육태도가 역기능적인 부부관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관심을 갖

고 애정적으로 대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즉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을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는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사실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적응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학업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치중하여 학습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초래하고, 나아가 학교 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부모가 마련해 주는 심리적 환경 또한 교육적 환경에 대한 투자만큼이나 아동의 향후 학업성취에 중요한 변인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용된 자료들은 모두 부모가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어, 부모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및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와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및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부모가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이 있다고 지각할 때, 아동이 문제행동의 수준도 높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이 직접 측정된 부부갈등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교사가 측정한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 아동들도 모두 포함되어,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해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그 분석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속적인 회귀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의 측정도구가 적은 수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 요인이고, 전체 변수의 수도 통제변인을 제외하면 비교적 소수여서 간명성을 위해 회귀분석으로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방식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이 동시에 연구에 포함되었지만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측정 모형을 도입하여 이를 잠재 변인으로 설정하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을 매개하는지 혹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을 매개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수경, 김경숙, 이희연 (2018).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공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459-478.
- 강지현 (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
-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공성애, 문혁준 (2015). 부모 간 갈등과 아동의 분노조절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19(4), 687-707.
- 권정윤, 조혜영 (2016).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인식, 부부관계, 자아인식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관계 간 구조적 관계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559-580.
- 김복현, 정영주, 차선희 (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4(2), 89-121.
- 김빛나, 진미경 (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7(3), 329-344.
- 김사라형선 (2010).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용서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55-66.
- 김수희, 김세영 (2018).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2(2), 319-335.
- 김영미, 송하나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우울,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

- 중. 아동학회지, 39(3), 73-82.
- 김오남 (2005).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그 대처행동 및 정신건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2(4), 99-119.
- 김은주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육아지원연구, 11(1), 5-28.
- 김이숙 (2016).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127-142.
- 김정은, 도현심 (2018). 부부갈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과 학대 및 방임의 매개적 역할.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36(2), 115-132.
- 김종훈, 성지현 (2013).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87-105.
- 김종훈,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문제행동 개입차와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6), 391-410.
- 김진경, 이정미, 강은영 (2018). 아버지의 원부모 애착표상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2(1), 65-89.
- 김춘경, 조민규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6, 33-56.
- 김한나, 이미선 (2013).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1(3), 73-92.
- 김현아, 장혜인 (2017).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1), 41-62.
- 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조수정 (2012).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145-164.
-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 류관열 (2014).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3), 289-298.
- 민미희, 김정민, 김지현 (2016).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103-121.
- 민하영 (2010).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조절 및 정서조절 관계에서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12.
- 박보현, 양혜정 (2017).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의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조절변인인가 매개변인인가?. 복지상담교육연구, 6(1), 55-76.
- 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 (2017).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 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적용한 중단 매개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51-79.
- 박정희 (2010). 부부갈등과 초등학생의 표출 불안과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 27-48.
-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유아의 기질, 또래유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39-162.
- 박진희, 박지선 (2017).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형제자매관계의 매개과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2), 1-18.
- 배민정, 정윤경 (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59-174.
- 서고운 (2017).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8(6), 79-91.
- 송명숙 (2016).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8(4), 39-56.
- 송미옥, 이경호 (2017). 유아 공격성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영향: 유아, 어머니 변인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1(1), 69-96.
-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과 권리*, 17(1), 109-135.
- 양영숙, 김봉환 (2009).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683-699.
-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5).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 *한국영유아보육학*, 93, 1-29.
- 오경자, 김영아 (2009). CBCL 1.5-5 매뉴얼 부모용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오새니, 권수진, 이상희 (2016). 아버지 특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구조모형 분석. *아동교육*, 25(1), 161-177.
- 오연택, 연규승 (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지적능력 간의 관계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31-50.
- 우수정 (2016).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6(2), 27-40.
- 유수옥 (2013). 연령 증가에 따른 영유아 문제행동 발생을 군집화 연구. *아동학회지*, 34(6), 57-75.
- 육아정책연구소. (2014). *한국아동패널(PSKC) 7차년도 데이터 도구 프로파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 (2016). *한국아동패널(PSKC) 제 1~7차 조사 데이터 사용 지침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광미 (2010).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부부갈등과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적응 간 관계. *미래교육연구*, 23(2), 59-84.
- 이경남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

- 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 이소현 (2018).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2), 117-127.
- 이승희, 김광웅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 인간발달연구, 11(1), 129-143.
-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및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이동학회지, 39(3), 141-156.
- 이은주 (2011).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 문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 부모효과 및 아동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18(2), 21-41.
- 이지예, 신경순, 김영희 (2017). 아버지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0(1), 59-81.
- 이지희, 문혁준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6), 77-88.
- 이형민 (2015).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 인지발달중재학회지, 6(2), 119-136.
- 이형실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양육행동간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7(6), 237-244.
- 임미지, 문혁준 (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인간발달연구, 21(1), 159-179.
- 임수진, 최승미, 채규만 (2008).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69-183.
- 장동숙, 유금란 (2018). 부부갈등과 분노의 관계에서 탈중심화의 조절효과: APIM 모델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271-293.
- 장영애, 이영자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83-205.
-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 장효은, 김춘경 (2018). 영아기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기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한국영유아보육학, 109, 21-52.
- 정문자, 전연진 (2005).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 검증 - 자녀의 성차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3(2), 41-55.
- 정소희 (2011). 갈등적인 부부관계와 한부모가족, 어느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해로운가?. 사회복지연구, 42(4), 165-186.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좌현숙, 변귀연 (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내재화 문제의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학교사회복지*, 19, 113-140.
- 채영문 (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13, 117-132.
- 최미나, 신나나 (2015).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283-310.
- 최영희, 박남심, 송승민, 박보경, 강미숙 (201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9(4), 297-316.
- 최정은, 이소연 (2017).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통제와 부정적 정서의 다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3(3), 151-171.
- 최혜란, 유지아, 김선미 (2017).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15-30.
- 허순영, 이경옥, 김영희 (2005).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아동의 문제행동. *놀이치료연구*, 9(2), 1-17.
- 허청아, 배한진 (201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9(1), 19-33.
- 홍구화, 서영옥 (2012).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와 분노에 미치는 효과: 감사의 조절 효과. *인문논총*, 29, 157-175.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5-19.
- Coln, K. L., Jordan, S. S., & Mercer, S. H. (2013). A unified model exploring parenting practices as mediators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3), 419-429.
- Cummings, E. M., & Davies, P. T. (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1), 31-63.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132.
- Hart, C. H., Newell, L. D., & Olsen, S. F.

- (2003). Parenting skills an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hood. In J. O. Greene & B. R. Burleson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 (pp. 753-7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eiley, M. K.,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0).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61-179.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L.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1 차원고접수 : 2018. 09. 05.
수정원고접수 : 2018. 11. 18.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9.

The Mediating Roles of Warm Parental Behavior between Marital Conflicts and Behavior Problems of 6-year-old Children

Rhee, Soo Bin

Kim, Yeon Ha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s of warm parental behaviors between marital conflicts and behavior problems of 6-year-old children using the data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2014). The data were analyzed with Cronbach's coefficient,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controlled variables were parents' age, parents' educational levels, monthly household incomes, and the gender of children. The results indicate that marital conflicts perceived by fathe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behavior problems.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warm parenting behaviors of fathers played mediating rol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conflic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The same pattern was found in associations between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These imply that the warm parenting behaviors of fathers or mothers, even if there exist marital conflicts between them, can be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from developing problematic behavioral patterns. This study suggests that parent education programs need to emphasize the value of warm parental behaviors i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Keywords: marital conflict, warm parental behavior, behavior problems